

제주 연등회의 역사와 지속성을 위한 제언

고 상 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장

- I. 들어가며
- II. 제주 연등회의 역사
 - 1. 조선시대 이전의 연등회
 - 2. 조선시대의 연등회
 - 3. 근대의 연등회
 - 4. 현대의 연등회
- III. 연등회의 지속성을 위한 제언
 - 1. 명칭의 문제
 - 2.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과 그 전제
 - 3. 영등굿과의 관계성 규명
- IV. 연등회의 재창조를 위하여

* 본고는 “전통문화 연등회(연등축제) 보존방안 세미나”(2018.5.26., (사)탐라성보문화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음.

[요약 문]

연등회는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국적으로 열리는 전통 의식이자 축전이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주 연등회와 같은 지역 연등회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물었다.

본고에서는 제주 연등회를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와 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이전은 설화, 사지유물, 고려와의 관련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태종 8년(1408)에 사원경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후 사원경제와 규모는 축소되었다. 후기에는 이형상을 비롯한 목사들이 불교와 무속을 탄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상현의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이증의 『남사일록』,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와 『남환박물』 등의 기록으로 면면히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8년 김윤식의 『속음청사』에는 4월 팔일에 종이 등을 만들어 집 마당에 걸었다는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근대의 면모는 신문이나 개인문집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4년 제주불교협회가 설립되었으며, 관음사 낙성 행사가 4월 초파일에 열렸다. 1935년 불탑사의 4월 초파일을 기념하는 사진에는 조선시대 기록에서 묘사된 장대를 세워 등을 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에는 연등달기, 연등행렬 등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등회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다양한 불교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불교계에서는 연등축제보다는 전통을 상징하는 제주 연등회로 바꿔야 한다. 셋째, 제주도민으로 널리 알려진 영등굿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제주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초파일, 영등굿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각 지역과 사찰에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와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면히 이어져오던 전통적인 의례이자 축전(祝典)인 연등회가 자리하고 있다. 연등회가 일반인들에게 중요하게 인지된 것은 2012년 4월 6일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불교계에서조차도 연등회의 실체에 대해 다가가려는 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문화재 지정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의 학술세미나를 거치면서 연등회에 대한 사실(史實)들이 하나씩 밝혀져 갔기 때문이다.

연등회는 오늘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초파일 행사였다. 최근 축전화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참가 확대를 위해 연등행렬이 초파일 전주 주말에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이러다보니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지는 것만을 연등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연등회는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 뿐만 아니라 초파일까지 이어지는 것을 총칭한다.

연등회는 서울만이 아니라 매년 전국적으로 행해진다. 해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제주, 부산, 광주, 청주, 울산, 대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봉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하였다.¹⁾ 이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었다. 그럼에도 지역 연등회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제주 연등회도 마찬가지이다.²⁾

본고에서는 2장에 제주 연등회의 역사를 크게, 조선시대 이전과 조선시대, 근대, 현대로 나누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으로서 연등회로 이어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BBS(2018.05.13), 「전통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지역 연등축제」.

2) 선행연구로는 한금순(2008)의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 - 연등회에서 영등굿으로의 변천」(『정토학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이 있다.

II. 제주 연등회의 역사

왕실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등회는 크게 국가주도기와 민관이행기, 민간주도기로 나눌 수 있다. 국가주도기(國家主導期)는 국가와 왕실이 중심이 되어 국가적 행사로 설행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초 연등회가 폐지되는 세종 13년(1431)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 연등회는 상원 연등, 2월 연등, 4월 초파일 연등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들이 형성된 시기였다. 민관이행기(民官移行期)는 관(국가)에서 설행하던 연등회는 점차 쇠퇴하고 민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를 말한다. 성리학적인 지배질서로 인해 사찰 외의 공간에서 벌어졌던 불교적인 행사는 불교색이 줄어들었다. 일부 양반들은 음사(淫事)로 취급했던 불교의례행사들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유희성이 강한 관등과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묘사를 남기기도 했다. 민간주도기(民間主導期)는 해방(1945년 8월) 이후 1946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로 현재진행형이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의 벽불(闕佛) 정책에 따른 위축과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굴절되었던 연등회를 불교계(민간)가 주도했다.³⁾

지방의 연등회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의 경우는 국가주도의 영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연등회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벽불 정책으로 중기 이후 성리학으로 무장한 일부 목사들에 의한 불무(佛巫)의 구체적인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 둘은 상호 습합하거나 무속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속되는 과정을 거쳤다.

제주 연등회를 조선시대 이전과 벽불기(闕佛期)의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기와 현대기로 나누어 통사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고상현(2013), 16-19.

1. 조선시대 이전의 연등회

연등회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주에 불교가 전래된 연원을 간략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제주에 불교가 전래된 연원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유입 경로로는 고대 인도에서 직접 해로로 유입되었다는 해로를 통한 남방전래설과 대륙을 통한 북방전래설(사국전래설, 고려전래설)이 있다.⁴⁾

본고에서는 남방전래설이 연등회와의 관련성을 밝힐 근거가 부재하여 북방전래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방전래설은 탐라가 백제 문주왕 2년(476)에 처음으로 백제에 방물을 바친 기록이나 고구려와 또는 662년 신라와 관계를 맺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사국은 불교문화가 성행하던 시기였으므로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고학적 유물로 보면 제주 법화사는 통일신라 장보고(?~846)에 의한 창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재위 918~943) 이래 혜종 1년(945) 이후 국가의례마다 상례적으로 참석하였으며, 1034년(정종 1)에 팔관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사』의 「지리지」 중 전라도(全羅道) 탐라현(耽羅縣) 조에 따르면, 태조 21년(938) 탐라국 태자 말로(末老)가 찾아와 조회하므로 성주(星主)·왕자(王子)의 작위를 하사받았다. 숙종 10년(1105)에 탁라(毛羅)를 탐라군으로 고쳤다.⁵⁾ 이후 충렬왕 3년(1277)에 원(元)이 이 지역에 목마장(牧馬場)을 설치하자, 원 소속으로 바뀌었다. 충렬왕 20년(1294)에 왕이 원에 돌려줄 것을 요구해 다시 고려에 복속되었다. 충렬왕 21년(1295)에 이름을 제주(濟州)로 고쳤다. 충숙왕(忠肅王) 5년(1336)에 초적(草賊) 사용(土用)과 엄복(嚴卜)의 반란으로 원으로 복속되었다가 공민왕 16년(1367)에 다시 고려에 내속되었다.

고려시대 제주목에는 수정사, 묘련사, 보문사, 서천암 등이 존재했고, 대정현에는 법화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성종 12년(1481)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여 중종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4) 고상현(2015), 17.

5) 『고려사』, 지리지, 全羅道 耽羅縣條, “太祖二十一年 耽羅國太子末老 來朝 賜星主王子爵 肅宗十年 改毛羅 爲耽羅郡.”

에 따르면, 제주에는 15개의 사찰이 존재했다. 제주목에는 존자암, 월계사, 수정사, 묘련사, 문수암, 해륜사, 만수사, 강림사, 보문사, 서천암, 소림사, 관음사 등이 있고, 정의현에는 영천사, 성불암이, 대정현에는 법화사가 있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 보고서』에는 고려 전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제주지역에 55개 정도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 제주시에 33곳, 서귀포시에 22곳이다.⁶⁾ 하지만 전영준은 기와 등의 유물 확인을 통해 고려시대 83곳의 사찰이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⁷⁾ 이처럼 제주 전역에는 많은 사찰들이 성쇠를 거듭하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불교 역사와 사찰들, 특히 법화사와 원 황실의 원찰로 추정되는 불탑사 등의 대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에서 설행된 의례, 특히 연등회에 대한 단서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 문헌에 언급된 단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 볼 수 밖에 없다.

조선시대 이전의 연등회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로 편입한 이래의 연등회는 『고려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에서는 연등회가 전국적으로 설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탐라가 고려로 편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민속에 왕궁과 수도로부터 향, 읍에 이르기까지 정월 보름에는 이틀 밤에 걸쳐 연등하여 왔다. 그러나 성종(成宗)이 이것은 분잡하고 상도가 아니라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이때에 와서 다시 열게 하였던 것이다.⁸⁾

고려시대는 태조의 훈요십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부터 설행되었던 연등회를 설행하였다. 위의 기록은 고려는 정월대보름에는 수도로부터 향·읍에 이르기까지 이틀 밤에 걸쳐 전국적으로 연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6) (재)불교문화재연구소(2011). 475-588.

7) 전영준(2015).

8) 『고려사』 권69, 禮 11, “國俗自王宮國都以及鄉邑以正月, 望燃燈二夜, 成宗以煩擾不經罷之至是復之.”

고려시대 탐라국은 태조 21년(938)에 작위를 하사받는 등의 교류를 시작으로 숙종 10년(1105)에 탐라군으로 편입되었다. 탐라군으로 편입되기 전에도 고려와 의례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사』 세가의 정종 즉위년과 가례잡의 중 중동 팔관회 의식의 대회일에 국왕이 임석하는 의례를 보면 탐라인이 참석하고 있다.

①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거둥하여 백관에게 술과 음식(醢)을 하사하였으며, 저녁에 법왕사(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대회(大會)에서 또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음악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동경(東京)과 서경(西京), 동로(東路)와 북로(北路)의 병마사(兵馬使), 4도호(四都護), 8목(牧)이 각각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하였다. 송(宋)의 상인, 동번(東蕃), 서번(西蕃), 탐라국(耽羅國)이 또한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의례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하사하였는데 후에는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⁹⁾

② 동·서 번자(蕃子)를 인도하며 이어 좌집례관이 탐라인(耽羅人)을 차례로 인도해 조하 및 전선(傳宣)하는 의례는 모두 송 강수(綱首)에게 행하는 의례와 같다.”¹⁰⁾

①은 세가편의 정종 즉위년(1034) 11월 14일(음)에 열린 팔관회이고 ②는 임금이 축하할 의식을 말하는 가례잡의 중 팔관회 의식의 한 장면이다. 팔관회는 주변 국가들에서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팔관회는 제천의식, 연등회는 불교의식이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두회는 소회일과 대회일로 구성되었으며, 등불을 밝히고 채봉을 설치하고 백희잡기를 베풀었다. 팔관회에 설치한 윤등(輪燈)과 사방에 나열한 향등(香燈)을 비롯하여 각종 백희잡기를 보았음을 의미한다.

탐라의 고려시대 사찰로는 대표적으로 대정현에 있었던 법화사를 들 수

9) 『고려사』 권6, 세가 권6, 정종(靖宗) 즉위년, 11월, “庚子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醢,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醢觀樂, 東西二京·東北兩路兵馬使·四都護·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10) 권69, 지 권제23, 예11, 가례잡의, 중동 팔관회 의식, “次引東·西蕃子, 次引左執禮官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

있다. 장보고는 8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적산법화원을 창건하고 이어서 완도와 탐라에 법화사를 창건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¹¹⁾ 고려시대의 지역 사원들은 해당 지역의 읍사와 긴밀히 유대 협조 및 상호 의존하고 있었으며, 지역민에 대한 교화와 윤리도덕, 국태민안 등을 설법하였다.¹²⁾ 또한 대읍 중심 근현체계의 주현 비보사사가 3경, 4도호부, 8목의 대읍·영읍과 소읍·속읍 혹은 향·소·부곡 등의 순으로 각각 안배되어 설치되었을 것이다.¹³⁾ 고려시대 제주목에는 수정사, 묘연사, 보문사, 서천암, 강림사, 고내리사지 등이, 대정현에는 법화사 등이 있었는데, 특히 법화사와 수정사는 비보사찰로서 이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등회도 설행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주도기의 탐라 연등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상원 연등회보다는 2월 연등회이다. 상원 연등회는 성종대(981~997)에는 유교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여 원년(982)에 팔관회의 잠기만을 없앴다가 6년(987)에는 완전히 폐지했다. 연등회도 이와 맥을 같이 하였을 것이다. 성종 12년(993) 이지백은 중국의 법을 즐겨 본받아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으므로 선왕이 행하던 연등과 팔관, 선량을 다시 열 것¹⁴⁾을 건의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20여 년이 지나 현종(顯宗)이 즉위(1010)하여 상원 연등을 폐지하고 윤 2월 연등으로 부활하였다. 그 이듬해 거란과의 전쟁 중에도 청주행궁에서 2월 연등회를 개최하는 등 이후 고려사회에서는 상례화되었다.¹⁵⁾ 그 후부터는 2월 보름에 연등하는 것이 전례로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원 연등회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탐라국이 고려로 편입된 숙종 10년(1105)은 이미 국가주도의 상원 연등회

11) 제주 법화사는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로는 1269년 이전과 1269~1400년경, 1400~1600년경, 1600~폐사시기로 4기로 구분하고 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2011), 479.

12) 김윤곤(2000), 230.

13) 김윤곤(2000), 269.

14) 『고려사절요』 권2, 「성종 문의대왕(成宗文懿大王)」 기사 12년(993)

15) 고상현(2103), 21-22 재인용.

가 폐지되어 1세기가 흘러간 시점으로 2월 연등회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었던 시기이다.

2월 연등회가 주목받는 것은 현재도 제주에서는 연등굿놀이나 영등굿(燃燈)이 2월에 설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제주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고, 영등신이 이달 초하루에 들어와 보름에 떠난다고 한다. 그래서 초하루에는 영등 환영제를 하고 보름에는 영등 송별제를 지낸다. 영등굿은 신들을 불러들이는 초감제, 본향당신을 불러들여 축원하는 본향뚝, 용왕신과 영등신을 제장으로 맞아들여 기원하는 요왕맞이, 바다에 씨를 뿌리는 씨드림,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도액막음, 영등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영감놀이,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도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등굿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그 연원과 시기, 내용에 등장하는 불교적 요소, 예를 들면 연유담음에서 등장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지장본풀이의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을 감안해볼 때 그 연관성은 적지 않다.¹⁶⁾

고려의 연등회는 정월 보름, 이월 보름, 4월 초파일 이렇게 정해진 세시민속으로 설행되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 개최되는 특설 연등회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에 동시에 설행되기도 하였다. 탐라가 고려에 편입되기 전에도 연등회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륙과의 교류를 통해, 특히 고려시대 주요 사찰의 건립으로 불교의 확산과 더불어 연등회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지 않았을까 한다.

2. 조선시대의 연등회

조선시대는 초기부터 성리학에 의한 벽불(闕佛) 정책이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태종 6년(1406) 사원을 폐지 내지 축소하여 기존의 12종파를 묶어서 모두 7개로 통합하고 각 소속사원 수를 242사로 축소하였다.¹⁷⁾ 하지만 이

16) 한금순(2008)은 고려시대 연등회가 조선시대에 금지되면서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격을 간직한 영등굿으로 전해진다고 보고 있다.

17)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3월(정사).

숫자는 전국의 사원의 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사전(寺社田)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원으로 추정된다.¹⁸⁾ 이런 정책은 제주에도 영향을 미쳐 태종 8년(1408) 2월 정미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주(濟州)의 법화(法華)·수정(修正) 두 절의 노비의 수를 아뢰어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주경(州境)에 비보사찰(裨補寺刹)이 두 곳인데, 수정사(修正寺)에는 현재 노비 130구가 있고, 법화사(法華寺)에는 현재 노비 280구가 있습니다. 비읍건대, 두 절의 노비를 다른 사사(寺社)의 예(例)에 의하여 각각 30구를 주고, 그 나머지 382구는 전농(典農)에 붙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⁹⁾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15개의 사찰 중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수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사찰과 승려들의 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연등회와 관련하여 세종 5년(1423)에 대궐안의 연등을 없애도록 하였다가 5년 뒤에 오히려 연등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세종 10년(1428) 3월 23일 사간원에서 연등을 금하자고 하니, 세종은 승려에게 재공(齋供)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하자고 하여 연등을 금하자는 사간원의 장계를 듣지 않는다.²⁰⁾ 하지만 계속되는 간언으로 인해 세종 13년(1431)에 결국 절 이외에서의 연등을 일체 금지하도록 윤허하게 된다.²¹⁾

18) 김윤근(2000), 249.

19)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28일(정미), “議政府啓定濟州 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 啓曰: “據濟州牧使呈, 州境裨補二處, 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 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 從之.”

20)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무신) 3월 23일(을사), “司諫院啓: “燃燈, 不可不禁.” 上曰: “供佛齋僧, 亦未盡事, 何獨禁燃燈乎? 待後日禁齋僧, 然後禁之可也.”

21)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신해) 4월 6일(경자) 1번째 기사 “下敎司憲府曰: 本朝風俗, 以四月八日爲佛生辰, 燃燈觀戲, 行之已久. 頃者, 諫院陳弊請罷, 予以習俗之久, 未易遽革, 重惟此習, 不可不革, 自今僧舍外, 中外燃燈一禁. 仍曰: 日期已迫, 愚民或有不知而犯禁者, 來八日則姑禁京中, 不知而犯者勿罪, 外方, 自來年禁之.”

이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관등 같은 민속은 행해지지 못하고, 사찰 내의 연등회로 축소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지역의 연등회는 관찰사나 목사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책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도 음력 2월 연등회가 설행되었다.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최부의 「탐라시 삼십오절」,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상헌의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이증의 『남사일록』,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와 『남환박물』,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등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이들 기록들은 15세기 후반, 16세기 중반, 17세기 초반·중반·후반, 18세기 초반 그리고 19세기 중반의 기록들이다.²²⁾

그중 최부의 「탐라시」 35절 중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기 싫어해도	嫌將歲月虛拋擲
조리회와 그네뛰기는 예부터 전해왔네.	照里鞦韆傳自昔
절에는 향을 피울 때 없어졌어도	僧刹了無香火時
연등 저녁이면 통소 북소리 요란하네.	駢闐簫鼓燃燈夕

최부는 1487년(성종 18) 11월 육지에서 죄를 짓고 제주도로 도망 온 범법자들을 찾아내 치죄하는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임명되어 제주로 건너왔다. 다음 해 초에 부친상의 기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 명나라 태주부 임해현에 도착하였다가 북경을 거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 시는 그가 50여 일 남짓 제주에 있는 동안에 들은 바를 쓴 것이다. 그의 문집인 『금남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김상헌의 『남사록』 등 탐라지류 등에 전하고 있다.²³⁾

이 시에서 조선전기 벽불정책의 영향으로 사찰의 경제에 타격을 받았지만, 고려시대 이후 사찰이 적지 않았는데도, 사찰에서 불공드리는 향을 피울 때는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묘사인지 시적 대구를 이루기 위한 것

22) 한금순(2008), 475.

23) 윤치부(2010), 196.

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부보다 30여 년 뒤에 오랜 기간 유배했던 김정의를 보면 시적인 표현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오랜 민속인 조리희(줄다리기)와 그네뛰기는 전해지고, 연등날 저녁에는 통소를 불고 북을 치며 온 고을을 누비고 다닌 민속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성종 9년(1478)의 초파일 연등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육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비슷한 풍속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金淨, 1486~1521)이 지은 기행록인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품관으로부터 미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조정의 높은 관리와 교제하여 결연한다.(自品官下至微者 皆交結朝貴)”라고 하고 이어서 주를 달아서 “부처에게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無人無願佛者)”라고 하고 있다.²⁴⁾ 이 글은 그의 문집 『충암집』에 실려 있는데, 그가 기묘사화로 인해 진도에서 제주로 유배지를 옮긴 1520년 8월부터 사사되던 1521년 10월까지의 기록이다. 조선 전기에 제주에서 불교가 얼마나 성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530년(중종 25)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8, 제주목 민속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월 초하룻날 귀덕(歸德)·김녕(金寧) 등지에서는 목간(木竿)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애월(涯月)에 사는 이들은 떼(槎)모양을 말머리(馬頭)처럼 만들어서 비단으로 곱게 꾸미고 약마희(躍馬戲)를 벌여 신을 즐겁게 하였다. 보름날에 끝을 맺는데 이를 연등(燃燈)이라 한다. 이 달에는 배타는 것(乘船)을 금하였다.²⁵⁾

약마희는 영등굿에서 마지막 영등신을 치송하는 배방송을 할 때, 짚으로 만든 작은 모형선에 제물을 실어 보내는 때물이 놀이를 말한다. 그런데 나무장대[木竿]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는 제사를 지내고 약마희를 하는 초

24) 제주문화원(2016), 144.

25) “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紳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 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燃燈. 是月禁乘船.”

하루부터 보름까지를 연등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민속은 계속 이어져서 인지 1653년(효종 4) 이원진의 『탐라지』와 1704년(숙종 30) 이형상의 『남환 박물』, 1849년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도 인용되고 있다. 이는 연등회에서 파생된 민속인지, 민속이 연등회와 결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681년 발간된 이증의 『남사일록』에도 연등을 묘사하고 있다.

연등절에 이르니 장대를 세워 둘러싸고	燃燈節屆立竿牢
나희 때 썩 꼬리 장식 깃발 높이 빙빙 돌리네.	儺戲時廻奉纛高
장수하는 고장 8월에는 좋은 일도 많아	壽城清秋多好事
그네뛰기 즐다리기 닭싸움하네.	鞦韆照里捕鷄毛

『남사일록』은 이증이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되어 1679년 10월 27일부터 1680년 4월 4일까지 5개월여를 머무르면서 쓴 일기이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음력 8월의 민속도 묘사하고 있어 자신의 경험담보다는 전해들은 이야기를 시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연등절에 장대를 세워 둘러쌌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현대 연등회에서 볼 수 있는 장대와 사방으로 드리운 깃발과도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이어져 오던 연등회의 전통은 이형상(1653~1733) 목사 등으로 인해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형상은 1701년(숙종 27) 겨울에 부임하여 1703년(숙종 29) 6월까지 임기 2년 반을 채우지 못하고 제주목사직을 떠나게 된다. 그럼에도 그가 제주에 미친 영향은 실로 제주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그가 사찰과 신당은 음사(淫祀)라 하고 그 폐단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불태워버린 신당이 129곳, 사찰은 『탐라순력도』 중 <건포배>에는 5곳, <병와선생이공행장>에는 해륜사와 만수사 2곳이라 하고 있다.

김형식(1886~1927)은 『혁암산고』 중 1917년에 쓴 「유관음사기(遊觀音寺記)」에서 “어떤 이는 이형상이 제주목사가 되어 모두 없앴다고 하나 읍지를 살펴보면 자세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불교와 무속이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축소되었을 뿐 지속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하던 시절, 초의의순(1786~1866)은 1843년에 6개월

간 제주에서 머무르게 된다. 이 때 산방굴사에서 주석하였다. 『원대정읍지』에 “초의 스님은 산방굴사에서 수도하였고, 추사에게 『밀다경(密多經)』 쓰기를 권하여 세상에 전하였다”고 하고 있다. 당시 제주목사 이원조의 부탁을 받고 시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에서 불교는 면면히 유지되었다.

1898년(대한광무 2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으로 제주도로 유배 간 김윤식(1835~1922)이 쓴 『속음청사』에는 양력 5월 17일, 음력 사월 초파일을 기념하여 등을 달았다고 하고 있다.

(1899년 5월) 17일 (초8일 乙酉)

맑음. 삼은, 아석, 양천, 규원, 국사, 하산, 이호와 같이 삼천재, 공신정에 올라가 쌀밥에 미역국을 들며 석가탄생의 좋은 날을 구경하고 시 한 수를 지었다.

조운성이 종이등[紙燈] 세 개를 만들어 집의 마당 가운데 걸어놓았다. 돌아와서 여러 사람을 맞아, 그 밑에서 함께 마셨다.²⁶⁾

(1900년 5월) 6일(초9일 庚辰)

… 조운성이 종이등 십여 개를 손으로 만들었는데, 어제는 비바람 때문에 매달지를 못했다가 오늘 밤에야 처마 낙수받이 밑에 걸었다. 줄줄이 매인 게 꿰어놓은 구슬 같고 빛이 온 마당을 비추었다.²⁷⁾

『속음청사』는 김윤식이 1887년 5월 29일부터 1921년 12월 31일까지 35년간 쓴 일기이다. 이 가운데 제10권인 1898년 1월 11일 유배지인 제주도에 도착하여 1901년 7월 16일 전남 무안군 지도로 이배되기까지 3년 7개월여를 머물면서 쓴 글이다. 조선시대의 제주 연등회에 대한 기록 가운데 4월 초파일을 단편이나마 언급한 보기 드문 사료이다. 조운성이란 이가 직접 종이로 등을 만들어 처마나 마당 가운데 걸어놓았다는 것으로, 등 제작의 일단과 등의 거치 방법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어, 당시 각 가정에서 등을 만들거나 걸어놓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월 연등에 대해서는 영

26) 김윤식 저, 김익수 역(2010), 177.

27) 김윤식 저, 김익수 역(2010), 228.

등제라 하여 “매년 2월 초부터 보름 전까지는 반드시 매일 큰 바람이 분다. 속전에는 연등신(燃燈神)이 있어서, 집집마다 푸닥거리를 준비하고 무당을 시켜 축원을 빈다.”고 하여 무속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제주 유림들은 『전등록』을 읽기도 하고 나한상을 봉안했다고도 하는 등 불유(佛儒)의 교류가 활발했으며, 유학자들의 불교 신행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형상 이후 두 스님과 김윤식의 행적과 기록을 통해 볼 때, 연등회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근대의 연등회

근대기(1900~1945)에 들어서는 다양한 기록들이 전한다. 신문을 비롯하여 개인문집²⁹⁾, 사진 자료 등이 그것이다. 사진과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근대 연등회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이 시기는 강창규(1878~1963?)가 16세인 1892년 4월 8일 출가한 것을 필두로 1909년 제주의병항쟁을 비롯하여 무오 법정사 항일투쟁의 본거지였던 법정사의 사상적 토대를 닦은 김석운 스님(1877~1949), 근대 제주불교의 안살림을 맡아 각 사찰의 창건과 재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안봉려관 스님(1865~1938), 이회명(1866~1952), 초대 관음사 주지를 지낸 도월정조 스님(1879~1936)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주불교가 활발하게 재건되어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였기에 일제의 문화정책이 제주불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전의 초파일 연등회의 모습을 오롯하게 살펴볼 사료가 발견되지 않아 비교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두기로 한다. 여기서는 근대기에 발간된 자료들을 통해 초파일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

28) 김윤식 저, 김익수 역(2010), 40.

29) 개인들이 남긴 기록으로는 대표적으로 남만리의 『탐라지』(1902년 경), 김석익의 『심재집』(1937년), 담수계의 『증보탐라지』(1953) 등이 있다.

펴보고자 한다.

1918년 3월 2일 <매일신보>의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이라는 기사에 “제주인민의 피속에는 부처를 밋는 정성이 부지 중에 흘러 내려와 비교적 다른 지방보다는 부처와 인연만은 곳이라.” 하였다. 1924년 4월 초파일에 관음사 중창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1924년 5월 16일 <매일신보> 4면에 보도된 것을 보면 당시 초파일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때는 제주불교협회가 창립된 직후이기도 하였다.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된 관음사의 실황은 왕년 본보에 소개함과 같이 봉녀관씨의 열성과 안도월씨의 알선으로 다년(多年) 건축중이던 법당은 이번에 낙성을 고(告)하고 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기념으로 성대히 낙성식을 개최한 바 감선월(甘船月)씨의 개회식사가 있을 후 이회명씨의 불교 강연과 박영희씨의 역사 설명과 본사 대표 차승옥(車升玉)씨로부터 창사의 내용 및 내력을 상세 설명하고 전전도사(前田島司)의 대리인 가승영조(加藤英造)씨가 출석하여 장래 확장에 대한 축사가 있어 관람자 남녀 합 만여명에 달하여 자못 인산인해를 이루어 본도 개황(開荒) 후 미증유의 대성황 치(致)

라고 되어 있다.

『회명문집』³⁰⁾에는

1924년 2월 2일 제주 관음사의 불사에 참여해 달라는 청을 받고 화공 문고산과 김보응 김학송 3인을 먼저 보내고, 나는 3월 2일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불사의 증단에 참석하였고, 4월 초파일에 관음사의 중창 낙성식까지 거행하였다. 이때의 상주대중은 안도월 스님과 안봉려관 비구니와 … 신도로는 신사 122인, 신여 553인, 관리 53인이었다.

… 말이 만여 명이지 그 수를 다 어찌 헤아리겠는가. 상상을 해 보라. 당시 제주도의 인구가 20 만도 못 미쳤던 것으로 볼 때 지금처럼 차도 없는 시절에 제주도 전 지역에서 참석하려고 관음사까지 오기가 그리 쉬운 일이

30) 『회명문집』(1991, 양산 : 통도사 四溟庵)은 회명 일승(晦明 日昇, 1866~1951) 선사의 문집이다. 1991년 손상좌인 태연 스님이 관련 자료를 수집해 펴냈다.

아니지 않은가? 한 마디로 제주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주불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왜냐면 이 행사를 계기로 관음사는 제주 사회는 물론 한국 불교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³¹⁾



사진 1) 1924년 6월 한라산 백록담 관불회

이어서 6월에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관불회(灌佛會)를 거행하였다. 이때 이 회광, 대흥사 주지를 비롯하여 제주도 승려 30여 명과 수백 명의 신도가 참가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이 장면을 담은 사진(사진 1)³²⁾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보면 스님들 뒤로 가마(輦)가 보이는데 이는 관불을 위한 탄생불을 이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가운데 솟은 장대 두 개는 연등을 나열하고 그 아래로 번을 드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의 연등은 1980년 본문사의 초파일 사진(사진 2)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31) (사)봉려관선양회(2017), 131-133.

32) 이하 사진1~5는 제주불교신문, 앞의 책에 게재된 것이다.



사진 2) 1980년 본문사 부처님오신날 기념사진

1925년 6월 10일 <매일신보>의 “제주 특별 봉불식” 기사에

전남 백양사지부 제주 원당사에서는 주임 하시울씨가 성의로 포교에 열심
 하던 바 去 五月 三十日은 즉 閏 四월 八일 초파일이라. 석가모니불의 탄
 신을 존중하는 정신으로써 難得의 好기회라 하여 기념적으로 당일에 성대
 히 봉불식을 거행하였는데 신도는 무려 四百人 以上이 참석하였고 주임
 하시울씨 개회식사가 有한후 오이화씨의 취지설명과 홍승균씨의 역사보
 고와 이희명 선사의 설법과 來賓의 축사가 차례 進行되야 일대의 盛황을
 證하였다더라.

1926년 1월 6일 김여옥 등 25명의 발기로 제주불교협회 산하 단체로 ‘제
 주불교부인회’가 조직되었고, 2월에는 김일순 외 11명의 발기로 ‘제주불교소
 녀단’이 조직되었다. 사진 3은 1926년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제주불교연합
 회가 관음사 포교소에서 봉행한 법회 이후 제주불교부인회와 불교소녀단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³³⁾

33) 제주불교신문, 앞의 책, 14쪽



사진 3) 1926년 관음사 포교소 사월초파일 기념사진

1927년 5월 14일 <매일신보>의 “제주 불탄 축하식” 기사에

제주불교협회에서는 四월 八일 석존탄강축하식을 거행하고자 七일 오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회계 축하식 거행의 要項을 토의하고 翌八일에 신중히 불탄축하식을 거행 하였다는데 굉장한 緣門의 건설과 찬란한 紅燈輝煌은 空前의 盛況을 무하얏으며 정오에 법사 이회명씨의 鬪河한 설법과 助教師 오이화씨의 석존 역사와 강태현 양흥기씨의 강연이 有한 후 부인회의 獻茶와 소녀단의 □□한 唱歌의 餘興으로 무사히 폐회 되었더라.

고 하였다. 초파일 모습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기사는 1927년 6월 『불교』를 통해서이다.

漢拏山南에 七日精進 有島以來의 未曾有事

제주 성내 불교당에서는 음4월 1일부터 始하여 제주불교협회 불교부인회 불교소녀단 각 정기총회를 7일까지 次第順了한 후 仍히 佛誕축하식은 層空에 高懸千燈과 街口緣門에는 五彩閃電이며 주야 2회에 李晦明법사의

懸河한 설법과 助教師 吳利化의 세존 역사와 橋口秀土 江夏友次郎 康泰 鉉 梁洪基씨를 위시하여 多士의 濟齊한 讚演이며 불교부인회의 헌다식 소녀단의 찬불창가, 戲鬘, 舞蹈, 유희, 素人劇이며 滿城人海를 成하여 각 사진반의 寄贈의 촬영이며 開道이래에 미증유에 대성황으로 경과 하였더라.(제주)³⁴⁾

1927년 초파일의 광경이다. 하늘 높이 등을 달고 거리에는 집집마다 오색 불을 밝혔다. 설법과 찬불가를 비롯하여 희만, 무도, 유희, 소인극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고려와 조선부터 전해져오던 연등회에서 법요식과 다양한 연희가 있었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일제시기 제주불교협회장도 일인이었던 시절에 설행한 것이라 전통적인 것인지 일식이었는지, 복합적이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

1920년대 중반 제주는 기존과는 달리 많은 불자들이 새롭게 조성된 사찰을 중심으로 모여 들었으며, 초파일 행사도 성황리에 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5년 5월 16일 <매일신보>의 “제주 浴佛式 성황” 기사에

제주도 불교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本月 10일(陰4월 8일)에 회원의 誠意로 육불식을 성대히 거행하여 일반에 종교사상을 喚起하였고 도내 각 단체에 서는 局部的으로는 況裡에 설교 강연회를 개최하였다는데 장소와 주관자는 氏名은 다음과 같다.

- 관음사 봉려관 주관
- 원당사 하시울 주관
- 만□사 송재술 주관
- 동명포교소 임계련 주관
- 제석사 홍천인 주관
- 조천사 고자선 주관

34) 제주불교사연구회(2002), 72.

협회 차원만이 아니라 개별 사찰의 초파일 연등회 모습도 엿볼 수 있다. 1935년 불탑사에서 찍은 사진(사진 4)을 보면 대웅전으로 보이는 초가지붕 앞에는 긴 장대를 세우고 번과 사방 줄을 드리워 팔모등같은 등을 듬성듬성 달려 있고, 만국기 같은 작은 깃발도 달려 있다.³⁵⁾ 손에는 일본식 접이등을 들고 있으며, 중앙에는 지화로 보이는 꽃이 놓여 있다. 이미 등에서도 일제의 영향을 느낄 수가 있다.



사진 4) 1935년 불탑사 초파일 기념사진

장대를 높이 세우고 연등을 늘어뜨리고 기를 단 모습은 앞서 살펴본 조선 시대 이증의 『남사일록』이나 김윤식의 『속음청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어서 주목된다.

이상에서 근대기의 초파일 풍경을 묘사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35) 진성기(1975)의 『남국의 민속』(교학사, 171)에도 현대의 민속이지만 “초파일날 절에서는 깃대 높이 만국기를 달아놓고 거기에 등줄을 매고 ‘대성이 오신다’하며 석가세존의 탄생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만국기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1924년 11월 17일 이회명을 중심으로 한 제주불교협회가 창립식을 한 이후의 초파일 기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제주불교협회는 항일기 제주 불교의 중흥을 위해 설립되었듯이, 불교계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창립된 지 4~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회원이 수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협회 산하에 포교당을 건설하거나 제주불교부인회, 제주불교소녀단 등을 조직 운영하였다.

초파일 행사도 오늘날처럼 제주불교협회 차원의 연합 행사와 개별 사찰에서 행사가 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등회에서 행해진 각종 법회와 등 제작, 관등놀이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은 지금이라도 이 시대를 살았던 고령 불자들의 구술 등을 통해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현대의 연등회

현대(1946~) 제주 불교사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으로 인한 4.3사건과 한국전쟁, 그리고 비구-대처 갈등 등을 거치면서 내륙보다도 더 참혹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현대 초기의 자료들이 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초파일 연등회의 연등 달기와 연등행렬, 초파일 봉축행사 등은 이어졌다.

4월 초파일의 민속으로는 연등 달기를 꼽을 수 있다. 제주시 노형동 광평마을에서는 “주로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연등을 다는데,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절에 가서 촛불을 켜다.”라고 하고 있다.³⁶⁾ 이외에도 제주시 이호동,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에서는 음력 2월 13일에서 14일까지 영등제를 지낸다. 4월 초파일에는 “촛불 켜기”를 한다. “불교 신자가 아닌 경우도 촛불을 켜다. 어린 아이가 자주 아프면 초파일에 무당(정운이)이 심지를 만들어서 “이 아이는 정운이 아들이여” 하면서 촛불을 켜다. 무당의 자식이라고 하면 잡귀들이 불리간다고 믿는다. 참기름 불꽃이 좋으면 운이 좋다고 믿는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채록한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9 - 한경면 고산리』편을 보면, 초파일에 등을 다는 제주인의 기본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다.

36)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13.

@ 그럼 사월 초파일 잇잖아예 (그럼 사월 초파일 잇잖아요)
1 스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 날이고. (사월 초파일 석가모니 탄생 날이고)
@ 예. 그 때는 보통 뭐 헨마씨? 스월 초파일에는. (예. 그 때는 보통 뭐 했어
요? 사월 초파일에는.) ...
#1 스월이라 초파일에는 영등 저 불 다는 날이고. (사월이라 초파일에는 영
등 저 불 다는 날이고.)³⁷⁾

다음은 연등행렬이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연등회의 하이라이트를 연등행렬로 꼽고 있다. 불교문화 관광콘텐츠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연등회의 경우, 현대의 연등행렬은 1955년에 시작되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현,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는 연등회를 제등행렬 이전(1946~1954), 제등행렬의 시작(1955~1974), 제등행렬의 발전(1975~1995), 연등축제의 시작(1996~2007)으로 나누고 있을 정도이다.³⁸⁾

제주의 연등행렬은 근대기의 자료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1950년대부터 규모의 대소를 떠나 줄곧 치러왔다고 하나,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불교룸비나가 1959년에 창립하였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주지부가 1963년에 창립하였다. 이들 출신이 중심이 되어 1976년 제주불교법우회가 구성되었으며,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비구-대처 갈등으로 종단별로 따로 설행되기도 하고 함께 설행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81년 법요식과 제등행렬은 북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제등행렬에는 각 신행단체에서 각자 준비한 여러 모습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기로 분장하기도 하고 사진 7처럼 단체 깃발을 앞세우고 각자 팔모등을 들고 가기도 하였다.

연합 봉축법요식과 제등행렬은 북초등학교와 광양초등학교, 제주종합경기장으로 변화되어 왔다. 북초등학교에서 법요식을 열 때는 북초등학교 → 북신로 → 동문로 → 중앙로로 이어져 중앙로 포교당에서 회향을 했다. 2000년대

37) 신우봉(2017), 309.

38)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2008), 13.

이후 종합경기장에서 시작되었다.³⁹⁾ 현재는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가 주관하여 제주종합경기장→한국병원→서사라사거리→광양로터리→남문로터리→중앙로터리를 거쳐 탑동



사진 7) 1981년 룸비니 제등행렬

광장까지 4km 구간의 행렬을 회향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연등행렬은 서귀중앙초등학교→1호 광장→초원사가로→동문로터리→중앙초등학교로 이어진다. 2017년에는 ‘서귀포시연합 봉축법요식 및 제등행렬’은 제주불교산악회(회장 이종철) 주관으로 4월 29일 오후6시 서귀포고 운동장에서 봉행하고 제등행렬은 1호광장→동문로터리→(구)초원다방→1호 광장→서귀포고 운동장에서 회향했다.

개략적으로 연등행렬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술이나 자료수집 등을 통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등 제작과 관련해서는 절에 다는 등이나 행렬 시의 작은 등은 각 사찰에서 꽃일을 통해 만들어졌다. 행렬 시 사용하는 대형등도 제작 기술이 전수되었다가 보다는 각 단체나 사찰에서 손재주가 좋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제주불교연합회를 비롯하여 사찰 단위에서 연등회보존위원회의 지원 등으로 등제작 강습회를 통해 재가불자들의 사찰별 자발적 참여와 기술적인 면의 향상을 꾀하고 있는 점은 향후 문화재 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⁴⁰⁾

39) 제주불교신문, 앞의 책, 135.

40) <제주불교신문>(2018.4.10), 「“세상 밝힐 전통등(燈) 직접 만들어요” 서귀포정토거사님, 직접 만든 전통등...깊어지는 신심」



사진 8) 천지연 유등문화축제 (출처: 각주42)

최근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유등의 전통이다. 유등이 전통적으로 제주에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대에 들어서는 여러 곳에서 유등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고종 제주교구에서는 1991년 5월 9일 성산초등학교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시가지 행진에 이어 통발 해안에서 등불을 띄우는 유등의식을 거행했다.⁴¹⁾



사진 9) 월대천 유등축제 (출처: 각주43)

2010년에 서귀포불교문화원(당시 이사장 태고종 수열스님)에서 9월에 개최한 ‘제1회 도민의 화합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천지연유등문화축제’를

41) 제주불교신문, 앞의 책, 94-95.

계기로 하여 점차 등축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⁴²⁾ 2016년에는 월대 천 유등축제⁴³⁾가 펼쳐졌다.

춘연등 추팔관의 고려시대 전통처럼 제주에서 춘연등 추유등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현대의 야간 문화관광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로서도 좋을 것이다.

III. 연등회의 지속성을 위한 제언

1. 명칭의 문제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점등식” 등이 현재 연등회를 주관하는 제주불교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연등회도 대중적인 행사를 지향하며 1996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의 공식 명칭으로 ‘연등축제’라고 하였다. 2009년부터는 “연등회 연등축제”를 병기하다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후하여 연등회로 부르고 있다. 지방의 연등회도 연등축제라는 명칭이 필요하다면 부제로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확장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전(축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전통적인 축전조차 ○○축전(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게 만든 요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축전조차 축제라고 이름하지 않으면 문광부의 지원이나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붙여진 것이다. 중앙 연등회가 제 명칭을 찾았음에도 아직도 지방에서는 연등축제로 불리는 곳이 적지 않다. 명칭은 문화재 지정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등회와 관련한 조직을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제주연등회로 고쳐 불러야 할 것이다.

4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27123&logNo=220820196582>, 검색일: 2018-05-13

4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jejucom&logNo=220765812683>, 검색일: 2018-05-13

2. 연등회의 문화재 지정과 그 전제

제주불교연합회에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영산재, 연등회 등의 불교 무형문화유산은 모두 불교 의례의식이다. 그런데 2002년 5월 8일 제주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불교 무형유산의 명칭이 “제주불교의식”이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해보겠다.

제주도의 불교의식은 부처님께 드리는 음성공양과 재(齋)공양의 측면에서 육지부의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 제주불교의식은 제주에 불교가 유입, 전승되면서 제주의 전통문화와 연계되어 육지 지방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즉 제주불교 세시의례 중 칠성제와 산신제가 육지지방에 비해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의 무속의례 중 산신제와 칠성제가 불교의례와 연계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지방에 비해 제주도의 불교의식은 사자천도의례가 중시되어 더욱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고, 천도재인 49재시에도 육지지방에서 소멸된 시왕각배를 시왕각청으로 순당하고 있고, 생전예수재의 경우에도 육불(관불)의식이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식 음악인 안채비 소리는 태징, 목탁, 북을 치면서 엄불하는데, 육지지방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며, 제주지방의 토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화청(회심곡)도 불교의 회심곡을 변이시켜 육지지방에서 불려지는 소리와는 다른 제주적인 토리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것에서 보더라도 제주도 불교의식은 칠성제, 산신제, 사자천도의례, 시왕각배, 생전예수재, 화청 등 다양한 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서 지정한 것이다.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에서 불교의식은 세분화되어 지정되고 있다. 제122호 연등회(2012.04.06.), 제125호 삼화사수륙재(2013.12.31.), 제126호 진관사수륙재(2013.12.31.), 제127호 아랫넛수륙재(2014.03.24.) 등이 그것이다. 이는 현 영산재가 1973년 11월 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되었다가 1987년 11월 7일 범패와 작법(作法), 장엄(莊嚴) 등이 ‘영산재’로 변경되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정한 명칭도 부산영산재(1993.4.20.), 전북의 영산작법(1998.1.9.), 인천 범패와작법무(2002.2.4.), 서울의 경제어산(2013.1.

3.) 등이다.

이처럼 명칭이 동일하다 해도 지역별로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은 별도로 이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아직도 다양한 전통불교의례의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는 불교의식을 하나의 틀로만 이해하게 하거나 다른 불교의례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제주도와 제주불교연합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현재 지정된 제주불교의식의 명칭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제주불교의식은 영산재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가칭 "제주 영산재"로 구체화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불교의례의 현황을 조사 연구하여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정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을 분류해서 보존하고 전승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민들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스님들이 제주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견해,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이미 앞선 연구에서 제주도와 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거나 연구한 보고서들에서 나타난 불교의 비율과 배제를 지적한 바 있다.⁴⁴⁾ 제주의 불교도들이 자기 절, 자기 소속 종단의 이해관계에서 바라보는 안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제주도의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불교와 전통문화유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제도이다. 문제는 이 조례의 가치와 그에 따른 활용, 즉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어떤 노력과 관심을 경주할 것인가이다. 불교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조례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연등회를 비롯한 제주 불교 무형유산의 문화재 지정을 앞당기는데

44) 고상현(2015), 21.

도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3. 영등굿과의 관계성 규명

연등회는 정월 보름, 2월 보름, 4월 초파일 3번의 선행 시기의 변화를 거쳤다. 고려 이전에는 두 가지 사례가 압혀진다. 하나는 백제 사료에서 관불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 『삼국사기』에는 정월 보름으로 기록하고 있어 정월 보름을 중심으로 선행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려시대에는 정월 보름과 예종 이후 2월 보름과 정월 보름, 고려 의종 이후 정월 보름과 2월 보름, 4월 초파일이 혼재되어 선행되고 있다. 고려 충렬왕 이후 4월 초파일이 중심으로 선행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세 시기가 혼용되었다.

제주의 연등에 관련 기록들은 근대기 이전에는 대부분 2월 연등에 관한 것이다. 4월 초파일 연등은 근대기에 즈음하여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제주가 내륙과 떨어진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번 정착된 전통적인 문화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영등굿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둘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 연등회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V. 연등회의 재창조를 위하여

제주는 문화관광의 섬이다. 지자체별로 체류형 관광객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면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관광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그 일환으로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전통문화관광과 야간 콘텐츠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 자연을 활용한 야경 오름 트레킹, 제주 별보기, 밤코냉이를 비롯해서 홀로그램 영상을 이용해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포레스트 판타지아’, 선운정사 ‘빛마루축제’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야간문화콘텐츠들이다.⁴⁵⁾

제주 전통문화와 야간 콘텐츠를 충족하는 것이 연등회이다. 연등회에는 다양한 세시풍속은 물론이고 야간에 등을 들고 다니는 연등행렬과 등을 전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동안 불교계의 정기행사로 치러지던 연등회가 새롭게 모습을 나타냈다. 가을의 서귀포 유등축제와 지난해 8월 11일~13일까지 제주 산지천 탐라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제1회 제주등축제가 그것이다.

제주 곳곳에서 열렸던 연등회처럼 제주도에서의 전통문화관광콘텐츠로서 등축전을 적극 지원하여, 최소 관광객들이 많은 몇 곳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초파일을 전후한 관등을 위한 등축전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8월과 가을 유등과 등축전을 제주불교연합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한다.

연등회는 처음 문헌에 등장한 신라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크게 3차례의 변화 시기를 거쳤다. 정월(1월) 보름과 2월 보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4월 8일(초파일)이 그것이다. 공존한 시기도 있었다. 현재 널리 알려진 4월 초파일 연등회는 고려 의종 20년(1166)에 백선연이 설행하였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가장 이른 것으로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제주 연등회에 대한 자료도 일천하고 연구도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과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전통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등회가 면면히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었듯이 공동체와 제주도민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45) 고상현(2017.10.12.), <제주불교신문>.

參考文獻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김석익(1937), 『심재집』.

담수계(1953), 『증보탐라지』.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제주도 세시민속』,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윤식 저, 김익수 역(2010), 『속음청사』, 제주: 제주문화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2008), 『초파일 행사 100년 -연등축제를 중심으로』.

(사)봉려관선양회(2017), 『해월당 봉려관 스님』, 제주: 열림문화.

신우봉(2017),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9 - 한경면 고산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제주문화원(2016), 『국역 증보탐라지』, 제주: 제주문화원.

(재)불교문화재연구소(2011), 『한국의 사지 현황조사 보고서』 하, 서울: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제주불교사연구회(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제주: 제주불교사연구회.

진성기(1975), 『남국의 민속』, 서울: 교학사.

회명 일승(1991), 『회명문집』, 양산: 통도사 사명암.

고상현(2103), 『연등회의 축제문화 연구』, 서울: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고상현(2015),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회통적 관점에서의 방향」, 『탐라문화』 5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김운곤(2000), 「고려시대 경상도 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 『한국중세사연구』 제9호, 한국중세사학회.

윤치부(2010), 「최부 <탐라시>의 이본 고찰」, 『새국어교육』 86,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영준(2015), 「고려시대 제주지역의 불교문화재 현황과 전망」, 『제주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방안』 세미나 자료집, 제주: 제주불교연합회 외.

한금순(2008),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 - 연등회에서 영등굿으로의 변천」, 『정토학연구』 11집, 한국정토학회.

고상현(2017.10.12.), <제주불교신문>, 「제주등축제 대규모는 아니지만 성공한 축제다. 왜?」(<http://www.jeju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87>)



접수일: 2019.01.21

심사완료일: 2019.02.12

게재확정일: 2019.02.15

《 Abstract 》

Suggestions for the history and sustainability of the Jeju Yeondeunghoe

Ko, Sang-Hyun

Study and Training Team Leader, Bureau of Educatio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Yeondeunghoe is a traditional ceremony and festival that has been held nationwide from the Goryeo Dynasty till today. Nevertheles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local Yeondeunghoe ceremonies. The same has been true of the Jeju Yeondeunghoe.

This study analyzes the Jeju Yeondeunghoe, dividing its practice into four periods of the period before Joseon Dynasty, the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modern period, and the contemporary period.

Before Joseon Dynasty, it can be found in relation to folk tales, temple relics, and Goryeo Dynast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especially in the 8th year of King Taejong (1408), measures were taken to reduce the temples' economic roles.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ministers represented by Lee Hyung-sang were known to have oppressed Buddhism and Shamanism. Nevertheless, we can find the continuing practice of the ceremony in the records of "Tamrasi" (The Poetry of Tamra) (1487) during Seongjong's reign and the *Sinjeung Donggukyeojiseungram* in 1530.

Kim Yun-sik's *Sokeumcheongsa*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of how he made paper lanterns and hung them in his yard on April 8, 1898, that is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In modern times, April 8th day ceremony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nd many records have been reported. The Jeju Buddhist Society was founded in 1924. In that year, the Gwaneumsa Nakseong (Completion) Ceremony was held on early April. In 1935, the photo commemorating the April 8th day ceremony of the Bultapsa Temple shows the construction of a pole as depicted in the previous period and

the hanging of lanterns.

In modern times, lantern celebrations, lantern procession, and lantern celebrations were held. Folklores on April 8th day ceremony such as baby haircut, Gisin-sae (grass covered with a roof), and lantern play in Seodang were also staged.

For the continuation of the Yeondeunghoe, first of all, the Jeju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5 must be renamed. Second, the name should be changed to Yeondeunghoe that embodies the spirit of its tradition rather than a Lantern Festival. Third, an in-depth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 and Yeongdeunggut, which is widely known as the Jeju folk.

Key Words: Jeju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Yeondeunghoe, April 8th day ceremony, Yeongdeunggut